



봄이 오는 길목에서



2002년 6월 개원이후 지난 한해 대규모 증축으로 시설 확충 및 직원 충원 등으로 변화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이제 모든 병원시설 및 인력이 안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해 우리 노인병원 직원들의 열정과 입원 어르신과 보호자 및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우리 노인병원이 거듭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의료시장개방, 의료광고 규제완화, 포괄 수가제도 도입 등 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병원은 차별화된 병원, 신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나눔의 정신과 탐의 결과를 중시하는 "나눔"이 있는 병원
- 사회적 책임과 꿈을 공유하는 "섬김"이 있는 병원
- 예측이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 정도(正道)로 가는 "미래"가 있는 병원을

모토로 하여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최적의 의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인적, 물적 투자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하는 병원이 되어 참된 병원 문화의 구축과 창달에 힘쓰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노인병원의 임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드리는 내 가족같이 편안한 노인전문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 2

대구시노인전문병원장 곽동관